

중국 고대 민간가요의 ‘閨怨’주제 考¹⁾

尹蕙智(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碩士過程,
dorlskfl@hanmail.net)

金賢珠(韓國外國語大學校,教授, hjkim8588@hanmail.net)

차 례

- I. 서론
- II. 중국민간가요와 ‘閨怨’주제
- III. 고대민간가요의 ‘閨怨’ 주제 내용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민간의 가요는 가창의 형식을 빌어 민중의 욕구를 전달하고, 그들의 경험을 서술하고, 애환을 풀어내며, 당시의 사회제도와 자연의 현상들을 묘사한다. 민간의 가요는 또한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사회 구성원의 사상·감정을 반영함으로써 어떤 다른 형태의

1) 이 논문은 교수와 대학원생 2인 공동연구 논문으로 대학원생 윤혜지의 연구는 제2단계 2006학년도 BK21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김현주 교수의 연구는 200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필자 중 교수는 제2단계 BK21 신한중문화전력사업단 참여교수임.

문학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흥적이며 진실하게 시대정신을 드러낸다. 요컨대 민간의 가요는 민중의 기본적인 정서를 나타낸다는 보편성과, 그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诗经》 이래로 汉乐府와 六朝의 乐府 그리고 唐의 曲子词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온 중국 민간가요의 특징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민간가요의 특수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중의 문학으로써 민간가요가 지니는 보편성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대의 민간가요는 특히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사실에 근거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선진 민가의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노래하고, 노동하는 자는 그 일을 노래한다.’는 사실주의 민간문학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²⁾ 다시 말해 한대 민간가요는 당시 문인문학과는 다른 사실적이고 서사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대외교역과 영토 확장에 있어 강성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당시의 정치적배경과 그로 인한 사회적 풍요와 이민족문화의 유입이라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안정과 이민족 음악의 유입은 민간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고, 민중들 사이에는 《诗经》의 <国风> 이래로 이어져 오던 자신들의 생활감정이나 현상을 노래한 개성적이고 생기 넘치는 가요들이 계속해서 유행하였다.

육조의 민가는 六朝- 吳·東晉·宋·齊·梁·陳-라는 여섯 왕조가 정치적으로 난립하였던 어수선한 시대적 배경 하에 불리어진 가요들을 말이며 그러한 시대적 배경은 육조의 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鄭振鐸의 《中國俗文學史》에서는 육조 문학의 풍격을 “남녀 간의 사랑이 깊고 풍운의 기운이 약하다.”³⁾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 주요원인으로 민가의 영향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風云이 있었으나 漢(漢)이 동쪽으로 천도하면서 그 기운은 약해졌고, 중원의 백성들은 강남이동 후 초기에는 마음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으나 점차 강남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또 다른 요소들 즉, 애정, 생활, 상업 등으로 민중의 관심이 이동하였다.

2) 兩漢樂府民歌“感于哀樂，緣事而發”與先秦民歌“飢者歌其食，勞者歌其事”的現實主義傳統是一脈相通的。張小平，『樂府民歌百首』，安徽文藝出版社，2004年，P.2

3) “兒女情長，風雲氣短”，鄭振鐸，『中國俗文學史』

또한 육조에 오면 민가는 한대에 비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⁴⁾ 그중에서도 남조의 민가는 한대의 그것에 비해 훨씬 많은 500수 가량의 가요가 거의 모두 남녀의 情歌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대의 민간 曲子词는 1900년 돈황 막고굴 석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채시제도가 폐지되고 더구나 역사서나 문헌의 기록조차 없었던 당대를 대표하는 민간가요였다. 곧 정치적 지배이념에 의해 제도적으로 채집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내외연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민간에 자연스럽게 생성, 구전되던 민간가요가 원래의 형태대로 필사되었다는 점에서 전대의 악부보다는 내용이나 제재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원형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지는 당대 민간가요이다.

중국 역대의 민간의 가요는 “感于哀乐, 缘事而发”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나그네의 思乡, 남녀의 爱情, 생활의 哀欢, 인생의 无常등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남녀의 爱情과 관련된 감정을 서술한 작품이 가장 많으며 이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보이는 가장 보편적이며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⁵⁾ 본 고에서는 爱情을 다룬 가사 중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고뇌와 원망의 감정을 토로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형태와 원인 그리고 제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그 시대를 汉代, 六朝, 唐代로 설정함으로써 중국 고대시기(B.C 206- A.D907 약1100년간) 민간가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闺怨’주제를 연구·고찰할 것이다.

연구 범위와 방법은 내용과 풍격을 위주로 할 것이며 평형적인 대비보다는 각 시대 민간 가요의 연속적 흐름을 파악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먼저 구체적 분석을 위해 ‘闺怨’의 정의와 범위의 설정이 선행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각 시대 ‘闺怨’주제 가요의 창작배경과 시대별 발전 양상도 고찰해 볼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될 민간가요의 작품은 양한과 육조의 경우 郭茂倩의 《乐府诗集》에 포함된 ‘闺怨’주제 민가를 기초로 하였으며, 당대 曲子词의 경우 《敦煌曲校录》의 관

4) 육조의 민가를 통칭하여 鄭振鐸은 ‘신악부’라 불렀는데 이는 漢·魏로부터 전해져 온 악부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발생되어 나왔음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鄭振鐸의 『中國俗文學史』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은 육조의 민가가 그 전의 악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5) 예를들면 楊海明 『唐宋詞論稿』에서 王重民의 『敦煌曲子詞集·敘錄』에 서술한 주제를 기준으로 545首의 敦煌曲子詞를 분류한 바 약 40%의 작품이 ‘閨情花柳’를 이야기 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唐宋詞論稿』,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8年, p.86참고

본을 저본으로, 《敦煌曲》, 《敦煌歌辞总编》 중의 신증자료와 《补 敦煌曲子词》 13수의 가사를 보충·참고하여 그 가운데 閨怨주제 작품을 선정하였다.

II. 중국민간가요와 ‘閨怨’주제

1. ‘閨怨’의 정의와 범위

‘閨怨’에 대한 정의를 《새국어사전》이나 《中文大辭典》에서 찾아보면 『새국어사전』에서는 “(버림받거나 하여) 남편과 헤어져 사는 여자의 원한”이라고 정의하고 있고⁶⁾, 《中文大辭典》에서는 “여자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 것”⁷⁾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閨怨’은 민간의 가요 속에서 서정적 자아가 여성인 경우, 그들의 愛情事에서 발생하는 좌절과 그 후에 생기는 원한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남녀의 愛情事에서 발생하는 여성이 서정적 자아가 된 민간가요는 크게 ‘閨情’과 ‘閨怨’으로 나눌 수 있는데 ‘閨情’이 喜怒哀樂汚辱의 七情과 정면적이고 이면적인 정서를 모두 다 포괄하는데 반해 ‘閨怨’은 그 가운데서 이면적인 부분 즉, 마이너스 정서⁸⁾를 담고 있는 것들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閨怨’주제 민간가요가 중국 문학사에서 하나의 분류 주제가 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에서 남녀의 사랑에 관한 민간가요는 고대로부터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禮教至上主義로 인해 점차 ‘閨情’과 ‘閨怨’으로 축소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⁹⁾ 이것은 곧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던 男尊女卑의 전통 관념에 의해 남녀간의 愛情에 있어서도 여성은 피동적이고 남성과 사회에 의해 억압받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연히 그러한 원망과 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閨情’가요의 대부분이 ‘閨怨’의 주제를 담아내게 되었다.

6) 문학박사 이기문감수 『새국어사전』, 동아출판, 1990년

7) “女子意不自得, 謂之閨房” 『中文大辭典』, 中華學術院, 1986년, p.15267

8) “마이너스 情緒란 寂寞과 哀傷, 憤恨, 怨怒등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情緒를 말한다.” 김유진, 임성문, 이봉건, 최형섭 共著, 『심리학 개론』, 형설출판사, 1983, p.7 鄭根姬, 「魏晉 閨怨詩 研究」 충남대 1993 재인용

9) 兩漢9) 李在夏, 「建安의 閨怨詩」,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2, p.174

이렇게 '闺怨'주제의 민간가요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사회 내에서 민간가요가 주로 담당했던 율분과 애환의 정서를 토로하는 역할은 남성화자보다 여성화자가 훨씬 용이했을 것이며, 또 앞서 설명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은 표출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소·정화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민간가요 내의 '闺怨'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단대별 연구만 다루어졌을 뿐 봉건제도가 행해졌던 1000여년에 걸친 중국의 고대시기¹⁰⁾를 아울러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闺怨'주제 민간가요의 연구는 '闺怨'주제가 통시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고대민간가요를 분류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闺怨'주제 민간가요의 창작배경과 시대별 양상

1) 창작배경

B.C3C~A.D3C(B.C206~A.D220)의 漢대와 A.D7C~A.D10C(A.D618~A.D907)의 唐대는 중국에 있어서 사회·문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대외적으로 교역과 영토확장에 있어서도 강성했던 봉건시대였으며, 이 두 시대 사이에 400년 동안 존립했던 六朝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먼저 정치적으로 한대는 강한 중앙집권체제를 가지고 진나라를 계승한 여러 제도의 틀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갔으며, 육조에 와서는 장기간의 분열과 전쟁으로 한대에 형성되었던 중앙의 법이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질서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각 지역 문벌들의 자의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분열되었던 국가를 다시 통일하고 당대에 이르면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영토확장과 서역 각국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등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어갔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지배층의 착취와 전쟁 등으로 인한 부역, 또는 봉건예교로 인한 소수계층의 억압 등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치자와 피치자간의 갈등이 있었던 반면, 전

10) 일반적으로 중국역사에서는 한대에서 당대까지를 고대로 분류하며 또한 당대까지를 전기 봉건사회로 분류한다.

통적인 문화에 이민족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민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 융합의 단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무제 때 들어온 胡曲과 이에 영향을 받아 지어진 李延年의 新聲²⁸곡은 외래음악과 중국의 전통음악이 융합하여 창작된 곡들이다.¹¹⁾

문학사적으로는 한대가 중국학술의 기본이 되는 유가의 경전을 비롯한 모든 이전의 전적에 대한 교감·고증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경학(經學)·사학(史學) 등의 학문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국문학사의 전통기반이 형성되었고, 이와 더불어 당시 주대의 민가로 전해진 《시경》과 그 외 《초사》 같은 작품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대 민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중의 생활과 애환을 노래한 시가들이 유행하였다.

육조의 시기는 중국문학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로서, 호족과 군벌들의 권력 투쟁이 그치지 않는 시기였지만, 오히려 문학·사상방면에서는 문인문학의 자각이 일어나고 개인의 삶을 사유하는 새로운 인생관이 출현하여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개성과 미문의식을 뚜렷하게 하였으며, 전대에 없었던 다양한 장르와 문학이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경들은 또 그 시대의 민중의 생활과 인식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문학의 내용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시대적 혼란이 오히려 민가를 포함한 문학의 형성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중국의 민간 가요는 한대와 육조의 ‘乐府民歌’와 당대의 ‘曲子词’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세 시기의 민간가요 중 민간적 특성을 농후하게 드러내고 있는 ‘闺怨’주제 민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시대별 발전 양상

‘闺怨’주제 민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면정서인 ‘怒’와 ‘哀’, ‘愁’, ‘惡’등을 그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공동생활을 해오던 원시부족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민간문학사에서 그 기원을 찾자면 당연히 중국 문학의 원천인 《诗经》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며 이 시기를 萌芽期로 본다면, 《诗经》 이래로 乐府와 古诗十九首¹²⁾가 탄생한 两汉의 시대는 ‘闺怨’주제 민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形

11) 김현주, 「고대민가의 예정관」, 『중국학연구』 27집, 2004년, p.26

12) 古诗十九首는 무명의 작가들에 의해 지어진 완전한 五言詩로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민간에서 채집한 樂府詩와 민요에서 영향 받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고는 古诗十九首를 광의의

成期로 볼 수 있으며, 六朝는 앞서 살펴본 시대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문학에 다양성이 확보된 시기였기에 '闺怨'주제 민가에 있어서도 发展期라 할 수 있다. 당대에 이르면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간의 가요가 기록되어졌는데 즉, 사원의 书生과 学僧에 의해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필사된 민간 曲子词가 그것이다.¹³⁾ 당대의 민간가요는 문인문학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였고, 당시가 외부와의 교류로 인한 소수 민족과의 융합의 시기였기에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 여성의 감정과 사상을 다룬 가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자연히 '闺怨'을 주제로 한 가요도 많아졌으며 따라서 문인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¹⁴⁾ 민간가요에서도 당대는 '闺怨'주제의 全盛期로 볼 수 있겠다.

이상 양한과 육조 그리고 당대의 '闺怨'주제 민간가요의 시대별 발전양상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闺怨'주제에 있어서는 민간의 가요도 문인문학과 마찬가지로의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강하게 영향 받는 민간문학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며, 또 중국문학에서 문인문학과 민간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오면서 문인문학 문체의 대부분은 민간문학에서 승격되어져 왔다¹⁵⁾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汉대의 민간가요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채집한 시가로서 '闺怨'주제에 있어서도 당시 규방에서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육조의 민간가요는 우선 魏·晋시기 문인들이 拟作하여 사회와 동떨어진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과 같이¹⁶⁾ 원래 음악성을 가지고 생동적이던 민가의 본질에서 벗어나 낭만적이고 유미적인 풍격을 형성하게 된다. 남북조에 이르면 민족적, 사상적, 문화적, 지리적 차이 때문에 남조와 북조가 서로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 즉, 남조가 남녀의 연정을 주로 노래하는 낭만적인 경향을, 북조가 당시 사회생활을 주로 반영하는 사회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하겠다. 당대의 민간가요는 '돈황'이라는 변방에서 불리어졌기 때문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헤어지고 골육이 흩어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대 민간가요의 형태로 본다.

13) 당대의 民間曲子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 당대 민간가요집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金賢珠, 『唐五代敦煌民歌』, 文史哲出版社, p3참고)

14) 鄭根姬, 「魏晉 閨怨詩 研究」 충남대, 1993年, p.7

15)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商務印書館, 2005年, p.1-2

16) 본 고에서 논하는 민간 가요는 가사라는 형식으로 통해 기록되어진 것에 한할 수밖에 없기에 그 기록자인 문인들의 詩作경향은 자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돈황’에서 유행한 당대의 민간가요에는 병사의 아내들의 원망을 다룬 ‘閨怨’주제의 민간가요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세 시기의 ‘閨怨’주제 민간가요가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간 여성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즉 민간에서 지어졌고 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고대민간가요의 ‘閨怨’ 주제 내용 분석

愛情은 동서고금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던 인류사의 주제로 이로 인한 감정의 표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계층적 지위를 초월하여 인류 문학사에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민간 가요를 연구하는데 있어 그 인간 내면의 순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愛情관련 주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閨怨’에 관련된 주제는 민가가요가 불리어진 이래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가는 것으로 중국 민간문학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양한과 육조, 그리고 당대에 이르는 중국의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주제는 남성중심의 유교사회라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것으로 세 시기의 ‘閨怨’주제 민간가요에서 나타나는 고독하고 비극적인 여성화자의 모습을 통해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본 고에서는 ‘閨怨’의 원인에 따라 전쟁과 남편의 출정으로 인한 ‘征婦怨’,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은 ‘弃婦怨’, 사회적 제도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기약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别婦怨’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민간가요는 민간의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충실히 담아낸 결정체로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상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문인문학에서 보이는 사회고발이라든가 교화와 교훈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랑에 대한 예찬이나 열정을 묘사한 가사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완곡하고 애절하게 표현한 고대의 ‘閨怨’주제 민간가요를 비교·분석하도록 할 것

이다.

1)征婦怨

‘征婦怨’의 주제는 전쟁에 따른 규중여인의 원망을 다룬 것으로 고금으로 널리 불리어졌던 주제이다. 중국에서 汉代, 六朝, 唐代는 전쟁이 잦았던 이유¹⁷⁾로 부부가 헤어지고 더욱이 장기간의 요역, 무역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기약 없이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 즉 규중의 여인이 수자리로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복잡하게 얽혀 일어나는 感情을 서술한 가사로 부녀생활과 사상·감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있다. 이런 작품의 내용은 주로 규중부녀들이 외지에 부역 나가 있는 남성들을 그리워하며 쓴 것이며, 이런 독수공방하는 부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남편과 하루빨리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그 은근한 그리움, 진지한 애정, 외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기대를 완곡한 곡조에 맞추어 탄식해내고 있다.

「饮马长城窟行」¹⁸⁾

青青河畔草 绵绵思远道 远道不可思 宿昔梦见之
梦见在我傍 忽觉在他乡 他乡各异县 展转不相见
枯桑知天风 海水知天寒 入门各自媚 谁肯相为言
客从远方来 遗我双鲤鱼 呼儿烹鲤鱼 中有尺素书
长跪读素书 中竟何如书 上言加餐食 下言长相忆

푸르른 강가의 풀, 끊임없이 먼 길 이별한 임 생각.
먼 길이라 생각할 수도 없지만, 어젯밤 꿈속에서 그를 보았네.
꿈속에서 보았을 때 내 곁에 있더니, 문득 깨니 타향이다.

17) 『資治通鑑』의 기록에 따르면 開元원년에서 天寶14년까지(713~755)전후 43년간 당왕조와 변경 각소수 민족과의 각종교류관계가 160차례인데, 그중 군사적인 것이 94차례에 이른다. 肖澄宇〈關於唐代邊塞詩評價的幾個問題〉p.30참고,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988년.

18) 「飲馬長城窟行」은 郭茂倩의 『樂府詩集』〈相和歌辭·琴調曲〉에 수록되어있는 것으로 「飲馬行」이라고도 부른다. 『文選』에서는 <고사(古辭)>라고 하였고, 『玉臺新詠』에서는 蔡邕(蔡邕)의 작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대의 전통 조류에서 벗어난 다른 계열의 시가는 모두 작자를 알 수 없는 민가에 가까운 성질의 시가이므로 무명씨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옳다. 金學主, 『한대의 문인과 시』 (개정판, 신아사, 1999년, 제2장 한 대 운문의 성격 p.131-132)

타향은 다른 현이라, 잠 못 들어 뒤척여도 볼 수가 없네.
마른 뽕잎은 하늘높이 부는 바람 알고, 바닷물은 날 추운 줄 아는데.
돌아오면 제각기 사랑하거늘 누가 있어 나와 말 나눌까?
객이 멀리서 와서, 잉어 두 마리를 주었네.
아이를 불러 잉어를 썬보니, 그 속에 한 자 길이 비단편지 있네.
공손히 무릎 꿇어 편지를 읽으니, 대체 편지엔 무어라 적혔는가?
먼저는 밥 잘 먹으라 당부하고, 나중엔 오래도록 그리워하고 있다하네.

「子夜四時歌·秋歌17」

秋夜入窗里, 罗帳起飄飏. 仰头看明月, 寄情千里光.

가을밤이 창안으로 들어오니, 비단휘장 바람에 나부끼네.
고개를 들어 밝은 달 바라보며, 천리 비추는 달빛에 이 마음 기탁하네.

s.1441 「凤归云」2首

征夫数载. 萍寄他邦. 去便无消息. 累换星霜. 月下愁听砧杵起
塞雁南行. 孤眠鸾帐里. 枉劳魂梦. 夜夜飞 .
想君薄行. 更不思量. 谁为传书与. 表妾衷肠.
倚爽无言垂血泪. 暗祝三光. 万般无奈处. 一炉香尽. 又更添香.

수자리 간 남편 몇 해가 되었는데 타향을 떠돌고 있는지,
떠나고는 소식 없는 것이 벌써 여러 해.
달 아래서 근심스레 다듬이 소리 듣는다.
변방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홀로 봉황이 수놓인 휘장 속에 잠든다.
애꿍게 그 혼은, 밤마다 꿈속을 난다.
그대 박정하게 간 것을 생각하면, 다신 그리워하지 않으리라.
누가 서신을 전해 주어, 천첩의 진심을 나타내리.
창에 기대어 말없이 피눈물 흘리며 몰래 일월성신께 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 향로에 향이 다하면, 다시 향을 더할 뿐.

綠窗獨坐. 修得君書. 征衣裁縫了. 遠寄邊隔.
想為君貪苦戰. 不憚崎嶇. 終朝沙象里. 只凭三尺. 勇戰奸愚.
豈知紅臉. 泪滴如珠. 枉把金釵卜. 卦卦皆虛.
魂夢天涯無暫歇. 枕上長噓. 待公卿回故里. 容顏憔悴. 彼此何如.

푸른 창에 홀로 앉아 그대에게 보낼 편지를 다듬는다.
출정복을 지어서 멀리 변방에 보낸다고.
그대가 임금을 위해 힘든 전쟁을 감당하고,
위험을 꺼리지 않고 종일 모래 더미 속에서,
단지 삼척검에 맡기어 간악한 무리와 용감히 싸우는 것 생각한다.
어찌 알 수 있으리 흉안에 흐르는 눈물이 구슬처럼 떨어지는 것을.
금비녀 거머잡고 점을 치니, 때마다 다 허무하다.
마음은 하늘 끝까지 잠시도 쉽 없이 꿈을 꾸고, 베개 머리에서는 긴 한숨이라.
그대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 날 기다리지만,
얼굴빛 초췌해졌다면, 서로 어찌할까?

長城이란 秦始皇이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았던 성 이름으로 그 아래 샘물이 나는 동굴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었다.¹⁹⁾ 漢대의 이 악부민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인이나 연인 중 한 사람이 남편이나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지었던 것으로, 제목 「飲馬長城窟行」도 이러한 연후로 붙여진 것일 것이다.

가사 앞부분은 멀리 있을 입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강가라는 설정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다 확실하게 격리시켜주고 있다. 그리움이 꿈속에서 입의 모습을 만들어내지만 꿈인지라 필연 깨게 되고 깨어나니 먼 거리의 타향에 떨어져 있는 냉혹한 현실에서 있다. 그 현실은 거리가 멀어 보고 싶어 잠 못 들어도 볼 수가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漢武帝때에는 장기적인 대외전쟁으로 인한 徭役이 잦았으니 桓寬의 《鹽鐵論》에 ‘今中國為一統而方內不安, 徭役遠而外內煩也, 古者無過年之徭, 無踰時之役. 今近者數

19) 郭茂倩『樂府詩集』曰: 一曰飲馬行. 長城秦所築, 以備胡者. 其下有泉窟, 可以飲馬. 黃節, 『漢魏樂府風箋』, 臺灣學生書局, 中華民國六十一年, P.34

千里, 远者过万里. 历二期而长子不还, 父母忧愁, 妻子咏欢, 愤懑之恨发动於心, 慕思之积痛於骨髓.’(오늘날 중국이 통일됨에 안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요역은 멀리 가니 안팎으로 번거롭다. 옛날에는 해를 넘기는 부역이 없었고 때가 지나는 병역이 없었던만, 지금은 가까이는 수 천리, 멀리는 만리가 넘고, 2년이 지나도 장자는 돌아오지 않아 부모는 걱정근심이요, 처는 탄식이라. 분만의 한이 마음에 일어나고, 사모함이 쌓여 골수에 사무친다.)²⁰라 하였다. 곧 당시의 전쟁과 부역이 민간에 끼친 폐해는 물론 征婦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여인의 한탄스런 심정이 드러나 있는데 즉 객이 찾아와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밥 잘 먹으라는 당부 인사와 너무 그립다는 사랑의 말이 담겨있다. 어떤 이는 그것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 또는 환희와 대조되어 실망을 드러낸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간단한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감정에 복받친 여인의 마음이 느껴진다.

「子夜四时歌·秋歌17」는 《乐府诗集》〈清商曲辞·吴声歌曲〉에 속하는 것으로 <子夜四时歌〉는 东晋·宋·齐 时期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무명씨에 의해 집체적으로 지어진 남조의 악부민가이다.

가을밤에 창가의 비단휘장이 바람에 나부끼자 홀로 독수공방하는 여인이 자신의 외롭고 처량한 마음을 가을 밤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에 의탁하며 달래는 노래이다. 즉,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 서로 볼 수 는 없으나 수 천리 타향에도 밝게 비칠 달을 보며 입도 달을 보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는 여인의 심경이 잘 드러난다. 위의 가사만으로는 무슨 연유로 헤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육조 민간가요가 상업이 발달했던 장강하류지역에서 주로 지어졌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인이거나 부역이나 군역을 하러간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위의 민간가요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여인의 한탄을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현상은 이민족의 침입과 왕조의 난립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는 달리 남조의 민간가요에서 ‘征妇怨’을 노래한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

20) 桓寬<鹽鐵論>卷第九繇役第四十九

러한 대치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또 남방의 풍부한 물산과 미려한 자연환경이 그들의 관심을 점차 이런 생활에 안주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으로 육조의 徵集制度는 병사들을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게 하며 그 가족의 생활도 보장해주어 병역에 임하는 병사에게 만약 부친이 사망하면 자식이 계승하고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계승하게 하는 의무제도인 世兵制를 주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²¹⁾

唐대 「凤归云」의 첫 수는 바로 남편을 수자리로 떠나보낸 여인이 노래한 것이다. 上片에서는 남편이 出征한지 몇 년이 지났어도 소식조차 없어 여인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듬이 소리를 듣고, 또한 남쪽으로 가는 기러기를 보노라니, 근심이 깊어져 그리워하다 꿈으로 이어진다. 下片은 주로 여인의 심리적 변화를 묘사한다. 그녀는 남편이 무정하게 떠나간 것을 원망하고, 또한 그러한 품성을 의심쩍어 하면서 오로지 하늘에다 남편이 속히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征夫数载, 萍寄他邦」二句는 멀리 出征한 남편이 마치 부평초가 떠다니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비유하였고, 이런 남편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인의 심정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달빛·다듬이·변방의 기러기 등과 같은 사물로써 이별에 대한 여인의 忧愁를 잘 그리고 있다.

제2수에서는 边塞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여인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원망을 함께 풀고 있다. 서한을 고치고 군복을 부치며 남편이 사막에서 고된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대목들은 출정한 남편을 걱정하고 뒷바라지하는 아내의 생활과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가사는 감정의 변화가 곡절하며, 전쟁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서술해냄으로써 변세에서의 전쟁의 상황을 대언하고, 征人들이 얼마나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상상케 하는 작품이다. 또한 여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심리적 활동은, 세미한 심리를 직접 묘사해 내기보다 오히려 여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곧 「凤归云」은 당의 府兵制 하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任二北은 《敦煌歌辞总编》에서 “唐代에 府兵制가 무너지고 폐된 원인으로 인하여, 敦煌曲중 무릇 ‘征妇怨’류에 속하는 작품들은 대개 开元末期의 시대상을 취하였다.”²²⁾

21) 黄永華著, 『中國古代兵制』,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94年.

22) 任二北『敦煌歌辭總編』; “因唐代府兵制之淪廢關係, 敦煌曲內之凡屬‘征婦怨’者已大都取得開元末期之時代。”

고 하였는데, 곧 征婦怨의 '怨'이란 부병제의 폐단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부병제는 기본적으로 병농합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府兵은 평시에는 농사를 지음으로 일반 농민들과 차이가 없지만, 일정 기간 궁성을 지키고, 변방에 나가고, 전쟁에 출정해야 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 변방에 나가는 것은 당초 3년을 임기로 하였으나, 開元 6年 이후에 6년으로 개정되었고, 盛唐때의 안사의 난 이후로는 이 제도마저 깨져 버렸다.²³⁾ 멀리 고향을 등지고 출정하거나 혹은 변방의 수자리를 지키다가 늙어서까지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심중팔구였다. 이 때문에 征婦의 원망과 한은 날로 심해졌다.

이외에도 征婦의 한서린 그리움을 제재로 하는 가사들은 모두 그녀들의 “相思夜夜到邊庭”(그리움은 밤마다 변경으로 가는 것 같다.)(s.2607 「茶怨春」)는 생각, “淚珠串滴. 旋流枕上. 無計恨征人.”(구슬 같은 눈물 알알이 켜 듯, 베개 위로 떨어져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쟁 나간 사람 원망한다.)(s.1441 「洞仙歌」)과 같은 고통, “早晚三邊無事”(조만간에 변방이 태평하였으면)(s.1441 「破陣子」)하는 부부가 다시 만날 소망 등 여러 心理的 形象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征婦의 원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사들의 공통적인 점은, 곧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에 그 그리움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며 그러한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征婦의 그리움은 대개 ‘觸景生情’으로 시작되는데, 그렇게 출정한지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돌아올 날도 알 수 없어 마음에 자연 원망이 일어난다. 이렇게 원망과 그리움의 감정들은 마침내 기원의 말로 귀결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恨하면서도, 그 情은 깊기만 한 모순된 심정을 극복하고 있다. 어느 시대이든 민중은 원망할지언정 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 뚜렷이 증명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민간의 가사에는 생명력이 있고 민간의 건강한 사상이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다양한 정서를 풀어내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풍자하는 개혁적인 문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 시기의 민가를 통해 본 ‘征婦怨’의 표현은 모두 전쟁으로 인한 이별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과, 가사에 직접 변새나 전쟁과 관련된 사물의 묘사를 통해 소박하면서도 서사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육조민가에서는 혼란했

23) 見 王壽南, 『隋唐史』, pp.644-647, 三民書局, 民國75年.

던 시대배경만큼의 '征妇怨'을 묘사한 작품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하다. 이는 아마도 짧게는 2-30년 길게는 5~60년의 수명으로 점철했던 육조의 왕조가 唐代 처럼 한번 출정하면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별의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을 것이다.

2) 弃妇怨

한대와 육조, 당대는 봉건예교사회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남성에게 버림받았으며 따라서 이 시대의 민간 가요에는 이러한 弃妇의 비극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는 봉건시대 多妾제도가 존재했던 사회적 배경과 '三从'과 '七去'와 같은 유교적 관습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인들의 그러한 슬픔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민간에서 가요로 불리어졌을 것이다. 아래의 민간가요에는 그러한 여인들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원망과 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상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怨歌行」

新裂齐纨素, 鲜洁如霜雪 裁为合欢扇, 团团似明月,
出入君怀袖, 动摇微风发 常恐秋节至,
凉飙夺炎热. 弃捐箧笥中 恩情中道绝.

새로 제나라의 흰 비단 끊으니, 깨끗하고 정결하기가 서리와 눈 같네.
재단하여 함환채 만드니, 그 둥그란 모습이 밝은 달 같네.
그대 소매 안을 드나들며, 살살 부치어 산들바람 일으켰네.
항상 걱정하는 건 가을 찾아와,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빼앗으면, 장롱궤에 버려져서,
임의 사랑하는 마음 중도에 끊어지진 않을까 하는 것이네.

「子夜歌36」

依²⁴作北辰星, 千年无转移. 欢²⁵行白日心, 朝东暮还西.

나는 북극성 되어, 천년토록 움직이지 않는데.
그대는 태양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아침에는 동쪽에서 나와 저녁에는 서쪽으로 들어오네.

「读曲歌27」

常慮有貳意, 欢今果不齐. 枯鱼就浊水, 长与清流乖.

언제나 두마음 품을까 걱정하였는데, 임계선 지금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
마른 물고기는 흐린 물로만 나아가고, 영원히 맑은 물과는 어긋나버렸네.

P.3137 「南歌子」

悔嫁风流叁. 风流无准凭. 攀花折柳得人憎.
夜夜归来沈醉. 千声唤不应. 回帘前月. 鸳鸯帐里灯.
分明照见负心人. 问道些须心事. 摇头道不曾.

방탕아에게 시집간 것 후회한다. 방탕한 것은 바로잡을 길이 없다.
꽃가지 당기고 버들을 꺾으니 남의 미움만 얻는다.
밤마다 돌아올 땐 깊이 취하여 여러 번 불러도 대꾸를 않는다.
눈을 돌리니 발 앞엔 달이 떴고 원앙휘장 안에는 등불이 켜있네
또렷이 배신한 사람을 비추어 보며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하고 물으면
고개 저으며 말을 더하지 않는다.

「怨歌行」은 《乐府诗集》〈商和歌辞·楚调曲〉에 수록되어 있는 한대 악부민가이다. 26) 부채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빗대어 감정을 표현한 것이

24) 方言, ‘我’의 뜻

25) 당시 方言으로 ‘你’의 의미 古時男女相愛, 女稱男子爲歡. 『古代漢語辭典』編寫組編, 『古代漢語辭典』, 商務印書館出版, 2006年, p626

26) 『樂府詩集』과 『玉臺新詠』에 모두 한대 반고의 대고모인 반첩여(班婕妤)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漢書』본전에 이 작품의 저자가 반첩여라는 기록이 없고 『文選』李善의 注에도 『歌錄』을 인용하여 “「怨歌行」은 고사(古辭)이다.”라고 하였기에 반첩여의 저작설을 부인하기도 한다. (張壽平,

나 단순하지만 그 비유가 절묘한 것은 민가에 보이는 성향 중 하나이다. 제나라의 흰 비단은 곱고 깨끗한 여성의 이미지이다. 그 부채는 여름 내내 주인의 사랑을 받았으나 더위가 가시면 버려지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앞선다. 여기서 여인을 부채에 비유하여 자신의 삶 또한 부채처럼 짧은 시절 한 때 사랑받다 결국 버려지는 운명임을 암시한다. ‘常恐秋节至’에서의 ‘常恐’은 버림받는 것의 두려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어 주며 연이어 ‘凉飊夺炎热, 弃捐篋笥中, 恩情中道绝’의 세 구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의 과장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도 공연히 하게 되는 걱정으로 이별을 맞음에 대한 담담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념은 당시 민가에서 보이는 힘없는 여인의 보편적인 자화상인 것이다. ‘弃’이라든지 ‘弃捐’과 같은 시어는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며, 결국은 마지막 구에서 ‘恩情中道绝’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子夜歌³⁶」은 《乐府诗集》〈清商曲辞·吴声歌曲〉에 속하는 것으로 「子夜歌」의 작자에 대해 《乐府诗集》解题에 따르면 “「子夜歌」는 晋歌로 晋에 子夜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어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가 아주 애처롭고 슬펐다.”²⁷⁾ 라고 《唐书·乐志》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子夜歌」는 후에 후인들에 의해서 「子夜四时歌」, 「太子夜变歌」, 「子夜警歌」, 「子夜变歌」 등으로 변하기도 하였는데 《乐府诗集》의 「子夜歌」와 「子夜四时歌」 밑에 “晋宋齐辞”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晋代 乐曲이 만들어진 이래, 宋·齐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지어진 것으로 판단되니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악곡은 晋代 子夜에 의해 지어졌을지 모르나 가사는 晋·宋·齐시대의 다수의 무명씨에 의해 지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⁸⁾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북극성을 자신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옮겨 다니는 태양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자신은 천년토록 움직이지 않고 사랑하는 그대를 향한 마음을 지키는데 그대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처럼 조석으로 변하니 너무 원망스럽다. 즉, 변덕이 심하여 갈팡질팡하는 임에 대한 불만을 노래하고 있다.

『漢代樂府與樂府歌辭』廣文書局印行, 1970年, p.148)

27) 『唐書·樂志』曰:「子夜歌」者, 晋曲也, 晋有女子名子夜, 造此聲, 聲過哀苦.

28) 安東煥, 「六朝民間樂府研究」, 전남대, 1994年 8月, p.16

「讀曲歌27」 역시 《樂府詩集》〈清商曲辭·吳聲歌曲〉에 속하는 것으로 《宋書·樂志》에 따르면 “「讀曲歌」는 민간에서 彭城王 義康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²⁹⁾라고 하였고 《古今樂錄》에 따르면 “元嘉17년에 哀后가 승하하자 이 악곡을 지었다.”³⁰⁾고 하였으니 악곡의 내용은 슬픈 곡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樂府詩集》에 남아있는 「讀曲歌」의 내용은 거의 모두 남녀의 정을 노래한 것으로 「讀曲歌」 원래의 가사는 모두 없어지고 후대 다수의 무명씨에 의해 그 가사가 다시 지어졌을 것으로 확인된다.³¹⁾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임이 다른 마음 품어 자신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늘 걱정하였는데 실제로 임이 자신을 버리자 원통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노래하였다. 즉, 枯魚는 자신을 버리고 변심한 임을 비유하고 있으며, 濁水는 자신에게서 임을 빼앗아간 다른 여인을 비유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임의 정절을 꺾게 만든 그 여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또 자신을 淸流로 비유함으로써 정절에 대한 당시 여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버림받는 여성들의 심경은 사람들에게 의해 동정 받지만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시 육조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육조의 민가 역시도 통속적인 시어와 그에 자신의 감정을 비유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고대 민가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밖에 육조의 ‘棄婦怨’류의 작품인 「子夜歌18」³²⁾, 「子夜四時歌·冬歌10」³³⁾에서도 모두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한 대의 「怨歌行」이나 육조의 「子夜歌36」와 「讀曲歌27」는 모두 다 사물에 빗대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반부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원망이 되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어투는 아니다.³⁴⁾ 그것은 차라리 체념에 가깝

29) 『宋書·樂志』曰:「讀曲歌」者, 民間爲彭城王義康所作也

30) 『古今樂錄』曰:「讀曲歌」者, 元嘉十七年, 哀后崩, 白官不敢作聲歌, 或因酒燕, 止竊聲讀曲細吟而已, 以此爲名.

31) 安東煥, 「六朝民間樂府研究」, 전남대, 1994年, p.33

32) “常慮有貳意, 歡今果不齊. 枯魚就濁水, 長與淸流乖.” 변심한 남자의 마음을 ‘枯魚’에,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빼앗아간 다른 여자를 ‘濁水’에, ‘淸流’를 자신에 비유하였다.

33) “冬林葉落盡, 逢春已復暱, 葵藿生谷底, 傾心不蒙照” 해마라기와 광향(공인)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다. 한대를 이어 육조에 이를 때까지 악부민가에서 보이는 여성화자의 모습은 대부분 이러한 모습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당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당대로 가면 버림받은 여성의 원한은 두려움과 체념의 단계를 넘어 좀 더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당대에서 ‘弃妇怨’류의 민간가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의 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당대 曲子词 P.3137 「南歌子」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P.3137 「南歌子」는 처음부터 여인의 불행한 혼인생활을 원망과 한탄으로 설파하고 있는데, 여인이 버림받게 된 이유는 ‘攀花折柳’, 즉 남편이 기방에서 바람을 피우기 때문이다. 남편은 애정에 충실치 못하고 인품도 바르지 못하며 술에 만취해 밤늦어서야 돌아오는데,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니, 이런 방탕한 남편 때문에 아내는 원망과 증오가 생겼다.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자, 달빛과 등불 빛에 의탁하여 자신이 남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만 있다. 가사의 줄거리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소박하고 짙진하며 서사적이다.

이 외에도 당대 曲子词의 P.2838 「拜新月」³⁵⁾, P.2838 「喜秋天」³⁶⁾ S.1441 「破阵子」³⁷⁾ 등의 가사에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버림받은 여자들의 원망과 한을 반영해 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 남녀불평등의 사회가 만들어 낸 일방적 정조관념과 인내를 강요당하는 여성의 심리를 고발하고 있으며, 분명한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弃妇’의 현상은 ‘闺怨’을 다룬 가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제이다. 비록 시대는 다를지라도 汉代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의 고대 중국은 봉건제도가 팽배해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봉건사회의 속박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로 말미암아 결혼유무를 떠나 이별이나 이혼의 피해자는 단연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弃妇’의 주인공

34) 「怨歌行」에 대해서 『시원번체』\ 평설에서는 “반첩여의 악부, 오인 「원가행」은 사물에 의탁하여 흥을 붙인 것으로 문체가 절로 드러난다. 풍원성(馮元成)은 ‘원망하면서도 화내지 않았으니, 풍인(風人)이 남긴 뜻이다. 「班婕妤樂府五言’怨歌行’, 託物興寄, 而文采自彰, 馮元成謂 ‘怨而不怒, 風人之遺.’” 기태완, 『한위육조시선』, 보고사, 2005년, 10월, p.135 참고

35) “蕩子他州去. 已經新歲未還歸...直至於今. 拋妾獨守空閨.”(방탕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미 새해가 되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지금에 이르러 버림받은 첩은 독수공방한다.)

36) “何處貪歡醉不歸. 羞向鴛鴦睡.”(어디서 기쁨을 탐하여 취해 돌아오지 않을까. 원앙금침에 잠자기가 부끄럽다.)

37) “不念當初羅帳恩. 拋兒虛度春.”(애초의 비단 휘장속의 은애를 잊었는가. 나를 버리고 허무히 봄날만 가네.)

공들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태도는 조바심과 한탄이며 결국에는 버려짐에 대해 체념과 원망의 심정만이 가사로 반영되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唐은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고 연애가 다소 자유로웠던 개방적 사회였는데, '弃妇'현상은 여전히 민간가요의 주된 주제였다. 汉代와 六朝의 弃妇가사가 근심이나 체념이라면 唐代의 것은 변절의 원인을 발설하여 남편을 꾸짖는 듯한 적극성이 나타난다.

3) 離別怨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별이란 변절과는 다른 개념이며 사회적 제도나 개인적 직업 등으로 헤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일찍이 《楚辭》에서는 “悲莫悲兮生別離”³⁸⁾(생이별만큼 슬픈 것은 없다.)라 했고, 실제로 고대의 민간가요에서는 사랑에 관한 것보다 이별이나 그리움에 관한 것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별 후 규방에서 집 떠난 자를 그리워하는 작품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그렇게 한번 떠나면 좀처럼 돌아오기가 힘들니 규방의 여인은 끝없는 기다림과 그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해 원망이 생긴다. '離別怨'은 주로 이러한 여인의 심사를 묘사하고 있다.

「傷歌行」

昭昭素明月, 輝光燭我床. 忧人不能寐, 耿耿夜何长. 微风吹闺闥, 罗帟自飘扬. 揽衣曳长带, 屣履下高堂. 东西安所之, 徘徊以彷徨. 春鸟翻南飞, 翩翩独翱翔. 悲声命俦匹, 哀命伤我肠. 感物怀所思, 泣涕忽沾裳. 伫立吐高吟, 舒愤诉穹苍.

환하게 빛나는 달, 반짝이는 빛이 내 침상 비추이니, 수심에 잠긴 사람 잠못 이룬다. 근심스런 밤은 얼마나 긴지, 실바람 규방에 불어드니, 늘어선 휘장 저절로 휘날리네. 옷을 걸치고 긴 띠 끌면서, 신을 끌고 대청을 내려간다. 동과 서 어디로 갈지, 배회하며 왔다갔다 하네. 봄새는 날아 남쪽으로 가는데, 빠르게 홀로 나는구나. 슬피 우는 것은 짝을 부름이니, 애처로운 소리 내 창자를 에이는구나. 사물에 느끼어 그리움 품으면, 눈물이 흘러 흘연히 치마폭 적시네. 오래토록 서서 높이 읊조리며, 맺힌 분 풀어

38) 『楚辭』 「九歌. 少司命」; “樂莫樂兮新相知, 悲莫悲兮生別離.....”

하늘에 호소하노라.

「子夜四时歌·秋歌11」

自从别欢来, 何日不相思. 常恐秋叶零, 无复莲条时.

임과 이별한 이래로, 어느 날이고 그리워하지 않은 날 있으랴.
가을 잎 떨어지면, 다시 연가지 돋는 때 오지 않을까 항상 두렵네.

「华山畿23」

夜相思, 风吹窗帘动, 言是所欢来.

밤에 임이 그리워서, 바람불어 창이 발 움직이면, 그리운 임이 오시는가 여기네.

S. 1441 「天仙子」

鷺语鶯啼惊晓梦. 羞见鸾台双舞凤.
天仙别後信难通, 无人问, 桃花洞. 休把同心千遍弄.
匡耐不知何处去. 正值花开谁是主.
满楼明月夜三更, 无人语. 泪如雨. 便是思君肠断处.

제비 지저귀고 피꼬리 우는 소리에 꿈을 깨어,
난대에서 쌍쌍이 춤추는 봉황을 부끄럽게 본다.
소식을 전해주는 신선 가버리니 그대의 소식 통하기 어려워, 물어볼 사람 없네.
골짜기에 꽃이 만발한데, 한가히 동심결을 잡고 몇 번이고 만지작거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구나. 마침 꽃은 피었지만 누가 주인인가?
누각 가득 밝은 달빛 비추는 야삼경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눈물은 빗물처럼 흐르고, 그대를 생각하니 애간장이 끊어지네.

「伤歌行」은 《乐府诗集》〈侧调曲〉에 수록된 汉대의 민가인데, 밝은 달빛과 촛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움의 감정만이 더하여 높이 읊조리며 그 원망

을 토로한 가사이다. 달빛 때문에 방을 나와 미풍과 철새를 대하노라니 그리움이 정이 고조되어 하늘에다 그 원망의 소리를 풀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여인의 감정의 일련의 흐름과 주인공의 무의식적인 일련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도 하고 점차 감정이 격앙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한다.

「子夜四時歌·秋歌11」는 《乐府詩集》〈清商曲辭·吳聲歌曲〉에 속하는 남조민가로써 임과 이별한 이래로 임 생각 하지 않은 날이 없고, 가을 잎 떨어지면 항상 임과 나의 사랑도 거기서 끝일까 두려웠다는, 한 여인의 진솔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가사이다. 여기서 ‘蓮’은 ‘戀’과 雙關語³⁹⁾로 다시 연가지 듣는 다는 것은 다시 사랑이 이어진다는 말을 빗대어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口語上의 수사법은 가창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⁴⁰⁾ 아마도 당시 유행하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첫 구의 “自从別歡來”라는 표현은 「子夜歌4」, 「子夜歌10」, 「子夜四時歌·春歌20」의 첫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써 당시 이 말이 이별가에서 상투어로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華山畿²³」 역시 《乐府詩集》〈清商曲辭·吳聲歌曲〉에 속하는 남조민가로, 밤이 되어 밤바람이 창외의 말을 살랑살랑 흔드는데 그 작은 소리에도 여인은 깜짝깜짝 놀란다. 사랑하는 임이 오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수사어구도 없는 나열식의 가사이지만 작은 바람소리 하나에도 임이 오시는가 여긴다는 여인의 말을 통해 그 그리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唐 曲子詞인 天仙子 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은근하고 맑은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체비와 피꼬리는 회춘하는 계절과 사랑을 상징하며, 난새와 봉새는 부부를 비유한다. 작품 중 ‘羞見鸞台雙舞鳳’, ‘休把同心千遍弄’, ‘正值花開誰是主’ 등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세련되고 은근하게 표현하였다.

이별의 슬픔은 막 사랑을 느끼게 되는 기쁨만큼 그 감정은 깊고 오래며, 그와 관계

39) 한 글자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중국문학의 표현기법이다. 예를 들어 실을 가리키는 ‘사(絲)’자가 실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발음이 비슷한 ‘사(思)’가 가지고 있는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옷감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필(匹)’자가 짝이라는 ‘배필(配匹)’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쌍관어(雙關語)는 중국문학에서 노골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남녀관계를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므로 애매한 점도 있으나, 또한 그만큼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고도의 문학수법이다.

40) 「子夜歌」 3회, 「子夜四時歌·夏歌」 2회, 「子夜四時歌·秋歌」 2회, 「讀曲歌」 7회 등

되는 일련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나온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별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대개 시절을 느끼거나 특정한 사물로 인한 연상법으로 인해 이별의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 여성은 주로 규방이나 정원 혹은 산책로에서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운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고 오로지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림의 자세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인다. 六朝민가는 단지 3,4句의 짧은 小曲을 통해 순간적인 감정포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복잡하고 기복이 심한 감정은 唐代 曲子 詞에서 장단의 구법을 활용하여 잘 묘사하였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한대와 육조 그리고 당대의 민간가요를 ‘闺怨’의 원인에 따라 전쟁과 남편의 출정으로 인한 ‘征妇怨’,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은 ‘弃妇怨’, 사회적 제도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기약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别妇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대와 육조 그리고 당대의 민간가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闺怨’주제 민간가요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자.

첫째, ‘闺怨’의 시공간적 배경은 주로 가을밤이나 겨울밤, 또 규방이나 정원이 그 무대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주로 거하는 공간은 주로 규방이나 정원에 한하여 있으며 여성의 외로움과 고독이 극에 달하는 시간은 모든 것이 쇠하여가는 가을과 겨울의 밤이기 때문이다.

둘째, ‘闺怨’주제 민간가사는 주로 독백체의 형식을 띠는데, 아마도 사회와 제도에 억눌린 여인의 한탄을 드러내기 용이했을 것이다. 즉, 정제되고 절제됨이 정통시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의 가요에서 이러한 형식은 여인들의 恨을 드러내기 가장 적당한 어투라는 것이다.

셋째, 감정의 곡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시대별로 변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인시에 있어서는 近体詩가 가장 절제되고 예술미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지만 민간가요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구법의 장단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민간의 가요는 결코 음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음악이 발달할수록 그에 부응하여 민간

의 가요도 오히려 리듬감있고 감정의 변화가 다양한 장단구의 가사를 선호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넷째, '闺怨'주제 민가는 时代精神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것은 '征妇怨'을 통해 전쟁과 변세의 고통을, '弃妇怨'을 통해 봉건예교의 모순점을, '别妇怨'을 통해 당시 민간 사회의 문제를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은 풍격과 내용을 통해 한대와 육조 그리고 당대의 민간가요는 당시 사회현실에서 규방 여성의 사랑이 어떠한 원인으로 좌절당했고, 또 그러한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여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주지할만한 사실은 민간가요에서 보이는 '闺怨'의 가요는 정통문학에서 보이는 '闺怨诗'와 그 발전의 양상은 비슷하지만 표현의 양상은 다르다는 점이다. 즉, '闺怨诗'에서는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의 작자는 분명한 남성이며 여성의 怨望을 남성의 시각에서 표현하고 있다.⁴¹⁾ 하지만 민간가요 속의 '闺怨'주제 가요는 실제 여성들의 怨望을 그들의 목소리로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기만 했던 여성의 모습에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주동적인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闺怨'주제 민간가요는 《诗经》 이래로 한대와 육조의 乐府민가와 당대 曲子词에서 꾸준히 그 맥락을 이어왔으며, 따라서 양한·육조·당대의 '闺怨'가요의 발전은 자연히 문인문학 속의 '闺怨诗'에도 내용적 체재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한대와 육조 그리고 당대에 이르는 민간가요의 '闺怨'주제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은 민간가요가 가지는 시대반영의 기능과 또 그에 따른 중국 고대 여성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정감을 느껴볼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41) 李在夏, 「建安의 閨怨詩」,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2, p.174

참고문헌

- 이기문감수, 『새국어사전』, 동아출판, 1990년
胡适, 『白话文学史』, 文光图书, 1985년
罗根泽, 『乐府文学史』, 文史哲出版社, 1981년
萧涤非, 『汉魏六朝乐府文学史』, 人民文学出版社, 1984년
郑振铎, 『中国俗文学史』, 商务印书馆, 2005년
任二北, 『敦煌曲校录』, 上海文艺联合出版社, 1955년
任二北, 『敦煌歌辞总编』, 上海古籍出版社, 1987년
段宝林등, 『中国俗文学概论』, 北京大学出版社, 1997년
张燕瑾등, 『中国俗文学史』, 文津出版社, 1995년
谢无量, 『中国妇女文学史』, 台湾中华书局, 1979년
黄永华著, 『中国古代兵制』, 台湾商务印书馆, 1994년
傅乐成著, 신승하역, 『中国通史』, 지영사, 2002년
李纯胜, 『汉魏南北朝乐府』, 台湾商务印书馆, 1976년
黄节, 『汉魏乐府风笺』, 台湾学生书局, 中华民国六十一年
张小平, 『乐府民歌百首』, 安徽文艺出版社, 2004년
梁荫众, 『汉魏晋南北朝隋诗感赏词典』, 山西人民出版社, 1989년
余冠英, 『乐府诗选』, 华正书局, 1983년
张寿平, 『汉代乐府与乐府歌辞』, 广文书局印行, 1970년
金学主, 『한대의 문인과 시』 (개정판), 신아사, 1999년
安东焕, 『六朝民间乐府研究』, 전남대, 1994년
王运熙, 『六朝乐府与民歌』, 台北 新文丰出版社, 1982년
高世瑜, 『唐代妇女』, 三秦出版社, 1988년
『唐代边塞诗研究论文选粹』, 甘肃教育出版社, 1988년
金贤珠, 『唐五代敦煌民歌』, 文史哲出版社, 1994년
薛天纬등, 『中国文学与地域风情』, 学苑出版社, 2005년

韓中言語文化研究 第12輯

蒋晓城, 「流变与审美视域中的唐宋艳情词」. 苏州大博士论文, 2004年
이재하, 「建安의 闺怨诗」, 东亚大学校 石堂传统文化研究院, 1992年
김현주, 「고대민가의 애정관」, 중국학연구27집, 2003年

Abstract

A study on Grudge of woman in Ancient Folk Ballads

Yun, Hye-ji ·Kim, Hyun-ju

The folk ballads reflect the social phenomenon and the thoughts, honestly display the spirit of the age compared to any literature. In other words, universality of basic sentiment and particularity of different from era to era also exist in the folk ballads.

Especially Ancient folk ballads have the spirit of the age that "It does feel about the joys and sorrows, also It is produced based on fact.", It is expressed homesickness of traveler, love of man and woman, joys and sorrows of life, uncertainty of life etc. Most of them express love of man and woman. especially that deals with 'Grudge of woman'. It has common subjects extend over Han, the Six Dynasty, Dang, also is expressed different from era to era.

Therefore this essay macroscopically inspect ancient(B.C206- A.D907 approximately 1000) folk ballads for three era tidal current and each dynastic development situation.

The essay will divide into three dynasty folk ballads drafts 征婦怨、棄婦怨、別婦怨.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ay know four results: First, the 'GuiYuan' time background concentrates in the fall night and the winter night, the special background concentrates in the boudoir and the garden. Second, may know 'GuiYuan' subject lyrics mainly displays by the monologue body. Third, there are contrast between the type of expression according to era. Fourth, folk Ballads of the age reflects that time's unique spirit of the age.

Key word: Folk ballads, GuiYuan, YueFu, QuZiCi, Han Dynasty, The Six Dynasties, Tang Dynasty